

1950年代 以後 西部 유럽의 地理學 方法論에 對한 研究

朴 東 源

◀目	次▶
1. 序 論	(3) 景觀概念
(1) 研究의 目的	(4) 地理學에 있어서 生態概念
(2) 研究의 方法	(5) 地理學의 部分性과 一體性
2. 本 論	(6) 地理學의 新方法論에 依한 新體系
(1) 個性記述의 方法과 法則定立의 方法	3. 結 論
(2) 地理學의 對象과 範圍	

1. 序 論

(1) 研究의 目的

195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 始作된 “新地理學”의 運動은 傳統의인 地理學과는 다른 地理學의 發展方向을 提示하였다. 이러한 “新地理學” 運動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나 反面 여기에 對한 批判도 無視할 수는 없다.

筆者는 本論文에서 複雜한 社會構造와 傳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西部 유럽의 地理學이 “新地理學”의 물결에 어떻게 適應하고 있으며 어떤 方向으로 發展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 地理學의 合理的 發展方向을 提示하여 보고자 한다.

(2) 研究의 方法

1950年代 以後 獨逸, 英國, 프랑스에서 행하여 진 地理學의 方法論的 研究結果를 分析하는데 가장 重點을 두었으며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에서 發表된 論文들도 參照하였다.

possible한 客觀的으로 文헌을 分析하기 위해서

※ 1978年度 文教部 研究費에 依한 研究임.

1) 本論文에서 詳細히 論하지 않은 概念은 筆者의 論文 “戰後 獨逸의 地理哲學” 1978. 12月 地理學論叢 第5號 pp.15~28. 을 參조할 것.

1950年代 以後 西部 유럽(스웨덴 포함)에서 出刊된 論文이나 單行本은 모두 수집하여 分析하였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新大陸이나 東歐圈에서 發刊된 것도 引用하였다.

“新地理學”의 核心을 알기 위해서 우선 “傳統地理學”의 特性을 간단히 살펴본 후 “傳統 地理學”과 “新地理學”에서의 基礎概念의 差異를 比較하였고 나아가서 이러한 差異가 地理學과 地理教育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고 理想的인 科學的 地理學의 相을 提示하였다.

本論文에서 자세히 論한 地理學의 基礎概念은 景觀概念, 生態系 概念, 地理學의 部分性과 一體性問題 등이다. 其他의 概念은 副次的인 概念으로 생각되어서 本論文에서는 重要하게 다루지 않았다.¹⁾

2. 本 論

(1) 個性記述의 方法과 法則定立의 方法

地理學에 있어서의 個性記述의 方法(ideographic method)과 法則定立의 方法(nomothetic method)에 對한 論爭은 Hettner 以來 이미 오랫동안

동안 행하여져 왔다.²⁾

個性記述의 방법은 地理의 對象의 唯一性和 偶然性を 前提하므로 非法則적이고 一般화가 不可能하며 法則定立의 방법은 地理對象의 法則性和 一般性を 찾아 내므로 科學적이고 理論의이라 생각하고 個法記述의 방법과 法則定立의 방법은 完全히 서로 相反되는 概念이라 믿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방법이 地理學의 研究에 있어서 가지는 意味에 對해서 지금까지 研究된 것 중 重要한 說을 綜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Vidal de la Blache와 그의 學派는 地理學에 있어서의 歷史성을 重視하므로 이들은 地理的 對象이 歷史學에서처럼 唯一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歷史學에서의 時間的 唯一性和 地理學에서의 空間的 唯一성은 서로 對應되는 意味를 갖는다.

따라서, 地域의 生活樣式(genre de vie)을 묘사하는데 있어서도 個性記述의 방법을 擇한다.³⁾

2) Hettner는 그의 地誌에서 다만 個性記述의인 방법만 強調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⁴⁾ 이는 그

의 地理思想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Hettner는 地理學에 있어서 個性記述의 방법과 法則定立의 방법을 同一한 位置에 놓고서 同一하게 취급하였다.⁵⁾

3) 法則定立의인 研究를 行하기 爲해서는 個性記述의인 研究가 반드시 必要하다. 왜냐 하면 法則이나 理論을 檢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唯一성은 一般성을 前提로 해서만 存在할 수 있다. 따라서, 地理學에서는 法則定立의(法則追求的)방법과 個性記述의 방법은 並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地理學이 다만 個性記述의인 방법만을 擇한다면 科學으로서 存立하기 어렵다.⁶⁾

4) 地理學(複合地理學, Komplexe Geographie)과 普遍地理學, Allgemeine Geographie)에서는 個性記述의 방법은 必要없고 다만 法則定立의 방법만이 重要하다.⁷⁾

5) E.Neef 등은 原則의으로 法則定立의 방법이 나 個性記述의 방법은 特別히 區分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研究의 段階의 差異에 不過하다

2) Hettner, A., 1927, *Die Geographie. ihre geschichte, ihr Wesen und ihre Methoden*, Breslau, pp.221~224.

Hartshorn,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Ann. Ass. Am. Geog.*, Vol. 29, No.384, pp.382~384.

3) Hettner, A., 1935, "Gesetzmäßigkeit und Zufall in der Geographie," *Geog. Zeits.*, 41, Cholley, A., 1946~1951 (1977), 地理學方法論의 考察(日本語번역) 大明堂

Stegmüller, W., 1966, "Der Begriff des Naturgesetzes," *Studium generale*. 19, p. 657.

Harvey, D., 1971, *Explanation in Geography*, London, p. 49.

Beaujeu-garnier, J., 1976, *Methods and Perspectives in Geography*, London & New York, p. 50.

最近에는 만약 歷史學이 다만 唯一性和 偶然性만 強調하고 法則性和 一般성을 찾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歷史科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런 면에서 歷史學과 自然科學의 根本的인 方法論의 差異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음. Harvey의 전계서, 1971, p. 49, 吉玄諫, 1979, "歷史學과 社會科學", 歷史學報, pp.175~196.

4) Schaefer, F.K., 1953, "Exceptionalism in Geography: A Methodological Examination," *Ann. Ass. Am. Geog.* 43, pp.226~249.

Harvey A., 1971, 전계서 3), p.50.

5) Hettner, A., 1927, 전계서 2), pp.221~224.

Hartshorne, R., 1933, 전계서 2), pp.382~384.

6) Obst, E., 1950, *Das Problem der Allgemeinen Geographie*, Tagungsbericht und Wissenschaftliche Abhandlungen, Dt. Geographentag, München, 1948.

Landshut, p. 45. 그는 個性記述의인 방법을 옹호하고 특히 直觀論(Intuitionismus)를 重視하였는데, 이는 아마 地誌에서 自然地理的인 側面이 強調됨에 대한 反動으로 생각 됨.

Burton, I., 1963, *The Quantitative Revolution and Theoretical Geography*, pp. 151~162.

Kraft, V., 1965, *Geschichtsforschung als strenge Wissenschaft*, E. Topitsch 편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Köln, Berlin, p.76.

Neef, E., 1967, "Anwendung und Theorie in der Geographie," *Pet. Mitt.* 111, pp.200~206.

Weiss, W., 1967, *Der Wissenschaftsbegriff der Geographie*, Wien, Diss. phil. Fak., p. 78.

그는 "Logische Geographie kann nur individualisieren"라 주장하여 특히 個性記述의 방법만을 重視하였다.

Wohlgenannt, R., 1969, *Wissenschaftstheorie, Wissenschaft und Philosophie*, Ed. 2, Braunschweig, p. 199.

Schmithüsen, J., 1970, "Die Aufgabenkreise der geographischen Wissenschaft," *Geog. Runds.* 22, p.435.

Hambloch, H., 1972, *Allgemeine Anthropogeographie, Eine Einführung*. Wiesbaden, p.37.

Beaujeu-garnier, J., 1976. 전계서 3) p.50.

7) Weich hart, P., 1975. *Geographie im Umbruch*, Wien. p.105.

고 하였다. 즉 研究의 初期에는 個性記述의인 方法을 취하지만 점차 法則定立의인 方法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다.⁸⁾ 뿐만 아니라 法則은 例外없이 適用되어야 한다는 것은 實제상 不可能하고⁹⁾ 制限된 空間과 時間에서만 適用될 수 있어도 法則으로서의 効力이 있으므로¹⁰⁾ 傳統의인 地誌에서 종종 의도한 類型化도 하나의 法則定立의인 方法으로 볼 때 個性記述의인 方法을 利用하였던 傳統의인 方法과 法則定立의인 方法을 利用하는 新地理學이 큰 差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6) 한편, 地理學의 個性記述의 特性을 維持하면서 法則性을 追求할 수 있는 方法論을 主張하는 說도 나오게 되었는데 TH. Kraus가 그 代表이다.¹¹⁾ 그는 地誌(Länderkunde)는 個性記述의이 되고 地理學의 다른 部分인 景觀學(Landschaftskunde, 여기서는 普遍地理學, allgemeine geographie을 意味)은 法則定立의이 되면 地理學은 法則定立의인 面과 個性記述의인 面을 同時에 가지고 發展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¹²⁾

以上에서 본 여러 가지의 說은 서로 상당한 相異點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分明한 것은 地誌가 만약 계속 個性記述의인 方法만을 使用한다면 上記한 Neef 등의 主張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科學으로 認定받기는 어

려운 狀態에 있고 나아가서 地理學의 最終目的을 地誌에 둔다고 하였을 때에는 地理學의 科學性自體가 否定될 수 있는 위험은 대단히 높다.¹³⁾

그러므로, 一般地理學은 勿論 地誌도 어떤 경우든지, 必要가 있을 때에는 그 概念을 바꾸어서라도, 法則定立의이 되어야 한다.¹⁴⁾

(2) 地理學의 對象과 範圍

獨立된 學問은 獨立된 領域이나 方法論 혹은 發達史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地理學의 하나인 獨立된 學問이 되려면 위에서 말한 條件에 맞아야 한다.

그러면 地理學의 領域은 과연 무엇이며 확실한 範圍를 갖는가?

우리들은 흔히 地理學의 領域은 地球圈이며 對象은 地表上の 人文 및 自然現象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領域은 결코 地理學만의 領域이 아닌 것은 分明하다. 例를 들면 地質學이나 生物學의 領域과 重複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研究의 領域에 依해서 地理學을 다른 學問과 區別하는 것은 不可能함을 알 수 있다.¹⁵⁾

F.v. Richthofen과 A. Hettner도 이러한 問題點을 알고서 地理學은 獨特한 領域이 있는 것이 아니라 獨特한 方法論이 있으므로 하나의 獨立된

8) Otremba, E., 1951/1952, "Der Bauplan der Kulturlandschaft," *Erde*, 3, p. 233.

Neef, E., 1967, *Die theoretischen grundlagernder Landschaftslehre*, Gotha, Leipzig, p.74, pp.88~90.

Schöller, P., 1968, *Leitbegriffe zur Charakterisierung von Sozialräumen*, K. Ruppert, "Zum Standort der Sozialgeographie," *Festschrift F. W. Hartke z.60. Geburtstag. Münchener Studien zur Sozial-und Wirtschafts Geographie*, Bd. 4, pp.183~184.

Bartels, D., 1968, "Zur Wissenschaftstheoretischen Grundlegung einer Geographie des Menschen." *Erdkundliches Wissen*, H. 9, p. 49.

9) Stegmüller, W., 1966, 전계서 3), p.655.

10) Albert, H., 1960, *Nationalökonomie als Soziologie*. *Kyklos*, 13, p.15.에서는 이러한 法則은 Quasigesetze라 불려 Allgemeingesetze와는 區分하자고 하였다.

11) Kraus, TH., 1951, "Über das Wesen der Länder," *Tagungsbericht und Wissenschaftliche Abhandlungen, Dt. Geographentag Frankfurt*, Remagen, p. 69.

12) Leutensach, H., 1952, *Der geographische Formenwandel, Studien zur Landschaftssystematik*, Bonn, p. 10, p. 75.

13) Weichhart, P., 1975, 전계서 7) p. 32.

Beaujeu-garnier, J., 1976, 전계서 3) p. 29. 그러나 個性記述의方法이 全然無用한 것을 主張한 것은 아님.

Schultze, A., 1970, "Allgemeine Geographie statt Länderkunde," *Geog. Rundts.*, 22, pp. 1~10.

Hendinger, H., 1970, "Ansätze zur Neuorientierung der Geographie in Curriculum aller Schularten," *Geog. Rundts.*, 21, pp. 10~18. 上記 兩人은 個性記述의인 地誌는 全然 存在할 必要가 없다고 주장함.

14) Schmitthenner, H., 1951, "Zum Problem der allgemeinen Geographie." *Geog. Helv.*, 6, p. 124.

Spreitzer, H., 1951, "Zur geographischen Organisation der Erdräume," *Pet. Mitt.*, 95, p. 256.

Weichhart, P., 1975, 전계서 7) p. 24.

15) 朴東源, 1978. 전계서 1) 참조.

學問이라고 말하였다.¹⁶⁾

여기에서 이들이 意味하였던 獨特한 方法論이란 地理學은 다른 學問과는 달리 地理的 空間내의 自然 및 人文要素들의 相互關係를 研究하는 關係의 學問이라는 點이었다.¹⁷⁾

그러나 最近에는 이러한 要素들 사이의 關係를 研究한다는 것만으로는 獨立學問이 될 수 없다는 主張이 強하게 나오고 있고¹⁸⁾ 더 나아가서 地理學은 아예 關係의 學問이 아니라는 說¹⁹⁾도 發表되어 傳統的인 方法論에 依해서 地理學研究의 對象과 範圍를 定하기는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地理學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地理學의 對象인 地球圈(Geosphäre, geosphere) 혹은 뒤에 論할 Landschaft도 그 定義가 애매하고 복잡한 點들이 큰 問題點으로 되어 있어 地理學을 하나의 獨立된 學問으로 내 세울 수 있는 理論的인 支柱가 될 수 없다는 點이다.

地球圈中에서 地理學의 對象으로 다만 特別한 本質을 가진 對象만을 選別한다 하더라도 特히 그 下位境界를 어떻게 定하느냐,²⁰⁾ 즉 가장 작은 景觀도 무엇이나 등의 問題는 答하기가 곤란하다.

H. Carol 등은 最下位境界는 研究의 對象에 依해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研究의 目的에 따라 研

究者가 研究의 價値가 있다고 보는 곳까지라고 이야기 하지만²¹⁾ 이러한 主觀的인 定義는 다른 隣接學問과의 關係를 생각할 때 대단히 애매하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地球圈中에서 特殊한 地理的 本質을 갖은 어떤 對象을 地理學의 對象으로 選別하는 것에도 問題點은 있다.

最近에는 特히 學問이 專門化되고 他 學問의 方法論도 必要時에는 얼마든지 借用해서 使用하므로 어떤 獨者的인 對象이나 方法論만으로서 어떤 學問을 하나의 獨立된 學問으로 定立시키기에는 不足하다. 따라서 G.Hard, 나 P.Weichhart 등은 歷史的인 發達過程을 學問을 區分하는 最終 指標로 使用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²²⁾

그러나 現今에는 歷史가 極히 짧은 學問들도 많이 생겨나므로 歷史가 오래된 學問들 사이에서는 歷史的인 發達過程이 區分的 指標가 될 수 있지만 歷史가 짧은 學問에서는 이것은 不可能하다.

따라서 E. Winkler, H. Carol, H. Tschierske 등은 이러한 問題點들을 解決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研究의 目的이나 觀點만을 고려하여 學問을 區分하자고까지 主張한다.²³⁾

이러한 主張은 바로 W. Warntz가 말한 “Geography is what geographers do”와 같은 말로

16) Richtofen, F.v., 1833, *Aufgaben und Methoden der heutigen Geographie*, Akademische Antrittsrede, Leipzig, p. 25.

Hettner, A., 1927, 전계서 2) p.129.

17) 自然 및 人文要素 各各 사이의 諸關係를 對等하게 보느냐 아니면 自然的 要素對 人間的 要素의 關係로 보느냐에 따라 그 接近方法은 相異할 수 있다. 傳統의 方法에서는 主로 後者의 立場을 취하고 最近의 生態學의 立場에서는 前者의 立場을 擇하는 것 같다.

18) Gerling, W., 1965, *Der Landschaftsbegriff in der Geographie, Kritik einer Methode*, Würzburg, p. 39.

Winkler, E., 1970, Das System der Erdwissenschaften und die Geographie, K.A. Boesler and A. Kühn 편 “Aktuelle Probleme geographischer Forschung,” *Festschrift f. J.H. Schultze z. 65. Geburtstag*, Berlin, p. 28~29.

19) Bobek, H., 1957, “Gedanken über das logische System der Geographie.” *Mitt. Geog. Gesell. Wien.*, Bd. 99, p. 124.

Schultze, J.H., 1957, “Die wissenschaftliche Erfassung und Bewertung von Erdräumen als Problem der Geographie,” *Erde*, 88, p.194.

20) Harvey, D., 1971, 전계서 3) p. 452의 resolution level과 James, P.E., 1972, All the Possible World, pp. 469~470의 degree of generalization과 관계되는 문제임.

21) Carol, H., 1956, “Zur Diskussion um Landschaft und Geographie,” *Geog. Helv.*, 11, p. 116.

Hard, G., 1973, “Zur Methodologie und Zukunft der physischen Geographie an Hochschule und Schule,” *Geog. Zeit.*, 61, p. 7.

22) Hard, G., 1970, “Die “Landschaft” der Sprache und die “Landschaft” der Geographen. Semantische und forschungslogische Studien zu einigen zentralen Denkfiguren in der deutschen geographischen Literatur,” *Coll. Geog.* Bd. 11, Bonn. p. 178.

Weichhart, P., 1975, 전계서 7) pp. 68~69.

23) Winkler, E., 1946, “Das System der Geographie und die Dezimalklassifikation,” *Geog. Helv.*, 4, pp. 339~340.

Carol, H., 1956, 전계서 21) p. 111.

Tschierske, H., 1931, “Raumfunktionelle Prinzipien in einer allgemeinen theoretischen Geographie, Axiomatische und empirische Bestandteile in ihr.” *Erdkunde*, 15, pp. 106~107.

서²⁴⁾ 地理學의 方法論의 定立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意味이다. 따라서 이러한 主張도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論한 바와 같이 地理學의 獨立性을 立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問題가 생긴 根本的인 原因은 地理學의 對象을 單一化시켜서 본 때문이다. 즉 地理學은 眞對象(Realobjekt)과 形式的對象(Formalobjekt)의 두 對象을 가지고 있는데²⁵⁾ 眞對象과 形式的對象을 混沌하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地理學의 眞對象은 地球圈이며 이 眞對象은 어떤 경우에도 變할 수 없다. 그러나 地理學의 形式的 對象은 認識對象(Erkenntnisobjekt)과 同意語로서 目的에 따라 變할 수 있다. 따라서, 認識對象은 學問의 發達過程에서 얼마든지 變化할 수 있기 때문에 專門家들의 合意(consensus)에 의해서 그 對象이 決定될 수 있다. 그러므로 認識對象은 現實的인 要求를 잘 反映하여 設定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理由를 낼 수 없어도 좋고 그럴 必要도 없다.²⁶⁾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地理學의 對象設定에 있어서의 理論的인 問題點은 對象概念을 下位概念과 上位概念의 두 次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解決할 수 있다.

(3) 景觀概念

地理學에 있어서의 景觀(Landschaft) 概念은 A. Humboldt와 C. Ritter 이대로 계속 論議되어 온 地理學에서 가장 重要한 概念이다.²⁷⁾ 景觀의 概念을 간추려 區分하여 보면 우선 景觀을 하나

의 個別的 地表空間으로 보았을 경우와 하나의 空間型으로 보았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前者는 다시 景觀을 다만 하나의 Land로 보았을 경우(Hettner)와 外樣으로 評價되는 하나의 地表空間으로 보았을 경우(Schlüter, Granö, Hassinger, Brunhes, Lautensach, Bartels 등)로 다시 區分할 수 있고,²⁸⁾ 後者는 이 空間型이 하나의 主要한 個別的 現象에 의해서 主導되는 경우(Spethmann, Koib 등)와 많은 個別的 現象의 結合으로서 主導되는 경우로 細分하여 볼 수 있다(Passarge, Obst, Krebs 등).

1950年代초까지 發表된 景觀의 概念規定에 있어서의 共通點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景觀은 많은 要素로 構成되어 있고 이러한 構成要素는 一定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이 構成要素와 그 關係가 景觀의 特性을 決定한다.

2) 景觀의 構成要素는 크게 自然的 要素와 人文的 要素로 나눌 수 있다. 이 構成要素들은 時間이 지남에 따라 그 自體도 變化하지만 構成要素 相互間의 關係도 變化한다.

3) 1940年代에는 景觀概念에 生態系概念이 도입되어 構成要素 相互間의 橫的 및 縱的인 平衡關係가 強調되었으나 이에 대한 反撥도 심하였다.

4) 景觀要素의 機能을 強調한 경우는 1938年 Amsterdam의 IGU 會議에서 發表한 地理學의 景觀에 對한 定義에서밖에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景觀要素의 機能에 對해서는 無關心하였다.

1950年代에 들어오면서 傳統的인 景觀概念 가운데 가장 問題가 된 것은 Schlüter 등이 말한 景觀을 外樣으로 評價되는 하나의 地表空間으로 보자는 主張이다. 그러나, 外部로 나타나는 地表空間에는 그 內部要因이 반드시 그대로 反映되어

24) Weigt, E., *Die Geographie*, Braunschweig p.40에서 再引用.

25) Zwittkovits, F., 1965, "Bemerkungen zu einem Wirtschaftsgeographischen System," H. Baumgartner, et al. 編 *Festschrift f. L. G. Scheidl zum 60. Geburtstag*. 1 Teil. Wien. pp.143~144.

Bartels, D., 1968, 전계서 8), pp.18~19.

26) Hard, G., 1970, 전계서 22). p.178.

Weichhart, p 1975, 전계서 7) pp.69~71.

27) 박 동원, 1978, 전계서 1), pp.8~9.

28) Lautensach, H., 1952. 전계서 12). p.52.

Bartel, D., 1968. 전계서, Beaujeu-garnier, J., 1974, "Toward a new equilibrium in France?," *Ann. Ass. Am. Geog.*, 64, pp.113~125.

Desbarats, J.M., 1975, "Contemporary trends in French geography," *Prof. Geog.* v.27, no.1, pp.7~14.

McDonald, J.R., 1975, "Current trends in French geography," *Prof. Geog.*, v.27, no.1, pp.15~18.

이상의 論文들에서 자세히 論하고 있다.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景觀分析의 方法上 必要하기는 하지만 그 全部가 될 수는 없고 다만 景觀에 對한 地理學의 研究, 分析을 하는데 있어서 出發點에 不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主張은 批判을 받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Beaujeu-garnier가 말한 바 있는 景觀研究에서 外部로 나타나는 要素에 對한 研究는 一段階 研究이고 그 다음 段階는 보이지 않는 景觀要素에 對한 研究가 되다라야 하며 最終的으로는 景觀을 構成하는 全要素의 動的인 平衡關係를 研究하여야 한다는 說은 適合한 學說이라 생각된다.²⁹⁾

한편, 以上과 같은 景觀의 特性을 감안하고 地誌의 對象이 景觀이라고 볼 때에는 傳統의인 自然地理學과 人文地理學의 完全한 分離는 不可能함을 알 수 있다. 地理學의 對象이 景觀으로 남아 있는 限에서는 地理學의 分離는 있을 수 없으므로 最近 地理學의 分離主義者들이 景觀概念, 特別 景觀의 全體性(Ganzheit)에 對해서 辛辣하게 批判하는 것은 當然하다 할 것이다.

地理學의 分離主義者들은 景觀의 全體性和 Schlüter 등이 主張한 相觀性強調를 理由로 내세워 景觀研究에 있어서는 分析的이고 法則定立的인 方法이 도외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傳統의인 景觀論은 非科學的이라고 主張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렇다고 景觀 本然의 本質인 全體性을 否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景觀의 全體性和 相觀論의인 考察은 반드시 모순되지 아니한다. 만약 景觀의 全體性은 無觀하고 相觀論의인 分析方法만 強調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地理學의 分離를 主張하는 理論의인 背景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³⁰⁾

地理學의 分離問題와 關聯시켜볼 때 가장 火急

한 問題가 景觀의 確固한 概念規定이다.³¹⁾ 景觀의 概念이 確固하지 않는 限에는 尙상 地理學의 方法論은 혼란을 거듭해야 하기 때문이다.³²⁾

따라서 H. Carol 등은 定義하기 쉬운 새로운 用語, 예를 들면, Geomer 등을 提議하였으나 Landschaft의 問題는 단순한 用語의 問題가 아니므로 깊이 論할 바가 못 된다.

最近의 新地理學의 方法論³³⁾에 適合한 새로운 景觀의 概念을 創出하기 위해서 우선 具體的으로 最近에 發表된 景觀의 構成理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W. Czajka,의 說³⁴⁾: Landschaft는 自然景觀(Naturlandschaft)과 文化景觀(Kultur landschaft)으로 나누어진다. 自然景觀은 自然的 要素로, 文化景觀은 文化的 要素로 構成되어 있다. 따라서 景觀은 自然景觀이나 文化景觀보다 上位概念이고 自然景觀과 文化景觀은 對等平行關係를 이룬다.

2) H. Spreitzer,의 說³⁵⁾: 自然的 要素는 自然空間의 景觀(Naturräumliche Landschaft)을, 文化的 要素는 文化空間의 景觀(Kulturräumliche Landschaft)을 構成한다. 上記의 두 景觀은 最終的으로 自然的 景觀(Natürliche Landschaft)을 構成한다. 이 自然的 景觀은 最高의 概念이므로 이 경우에 Landschaft의 概念은 形而上學的의이다.

H. Spreitzer,의 또 다른 說³⁶⁾은 時間의 概念을 넣은 것으로 自然景觀(Naturlandschaft), 原景觀(Urlandschaft), 文化景觀(Kulturlandschaft)을 區分하고 自然景觀과 文化景觀이 最高의 概念이며 原景觀은 中間概念으로서 결국 最終的으로 文化景觀으로 變化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

29) 이러한 學說은 Beaujeu-garnier 以前에도 Juillard, E. 1962, "Le région: essai de définition," *Ann. d. geographie*, v.71, 이나 Sestini, 1963, 등이 發表한 적이 있음. Beaujeu-garnier, 1976, 전계서 3) p.47.

30) Weichhart, P., 1975, 전계서 7) p.28 참조.

31) 예를 들면 G. Hard, 1970, 전계서 22) p.28, 는 Landschaft는 獨語의 Gegend, Ansicht, Panorama, Areal, Bezirk, Gebiet, 佛語의 passage, région, 英語의 region 등의 諸 概念과 形而上學的의이고 美學的인 概念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32) Schmithüsen, J., 1964, "Was ist eine Landschaft?," *Erdbk. Wiss*, 9, Wiesbaden, p.7~8.

Stachowiak, H., 1969, *Denken und Erkennen in kybernetischen Modell*, Wien, New York, p.103.

Wohlgenannt, R., 1969., 전계서 6) p.31.

33) 여기에서 新地理學의 方法論이라 함은 반드시 1950年代 이후 計量革命과 더불어 發達한 "新地理學"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다.

34) Czajka, W., 1962/63, "Systematische Anthropogeographie," *Geog. Taschenb.*, 1962/63, Wiesbaden, p.291.

35) Spreitzer, H., 1951, "Zur geographischen Organisation der Erdräume," *Pet. Mitt.*, 95, p.256.

36) Spreitzer, H., 1951, 전계서 35), pp.256~257.

하면 自然景觀과 原景觀은 모두 自然的 要素에서 出發하지만 原景觀은 中間과정에서 文化景觀으로 變化되며 文化的 要素는 다만 文化景觀만을 形成함을 意味한다. 이 때에도 Landschaft는 形而上學的 概念이다.

3) C. Troll, 등의 說³⁷⁾ 自然要素는 自然景觀을, 文化要素는 文化景觀을 形成한다. 自然要素와 文化要素는 서로 複合的이고, 生態學的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機能的, 相觀的으로도 밀접히 關係된다.

自然景觀과 文化景觀은 合하여 最終的으로 文化景觀(Kulturlandschaft)을 만든다. 따라서 最終的 文化景觀은 그 下位의 文化景觀과는 同一한 用語이지만 上位概念이다. 이와 같이 上位概念의 文化景觀과 下位概念의 文化景觀을 區分하기 어려운 점이 이 學說의 短點이다. 여기에서도 Landschaft는 形而上學的 概念이다.

4) H. Bobek,의 說 :³⁸⁾ 人間이 居住하지 않는 空間은 自然景觀, 人間이 居住하는 空間은 文化景觀이라 하였다. 따라서 文化景觀 안에 自然要素와 文化要素가 同時에 存在한다. 그러나 文化景觀에 包含되는 自然要素와 自然景觀내의 自然要素는 本質的으로는 同一하지만 實際的으로는 區別하였다.

自然景觀과 文化景觀은 合하여 景觀을 構成한다. 따라서 景觀은 構體的인 實在이다.

5) P. Weichhart,의 說 :³⁹⁾ 文化景觀을 最上位概念으로 보는 경우와 景觀을 最上位概念으로 보는 경우로 區分한다. 前者에서는 自然要素는 自然景觀을, 自然要素와 文化要素는 合하여 文化景觀을 構成하며 後者에서는 自然要素는 自然景觀을, 文化要素는 文化景觀을 만들고 다음에 이 自然景觀과 文化景觀은 複合하여 보다 높은 段階의 景觀을 構成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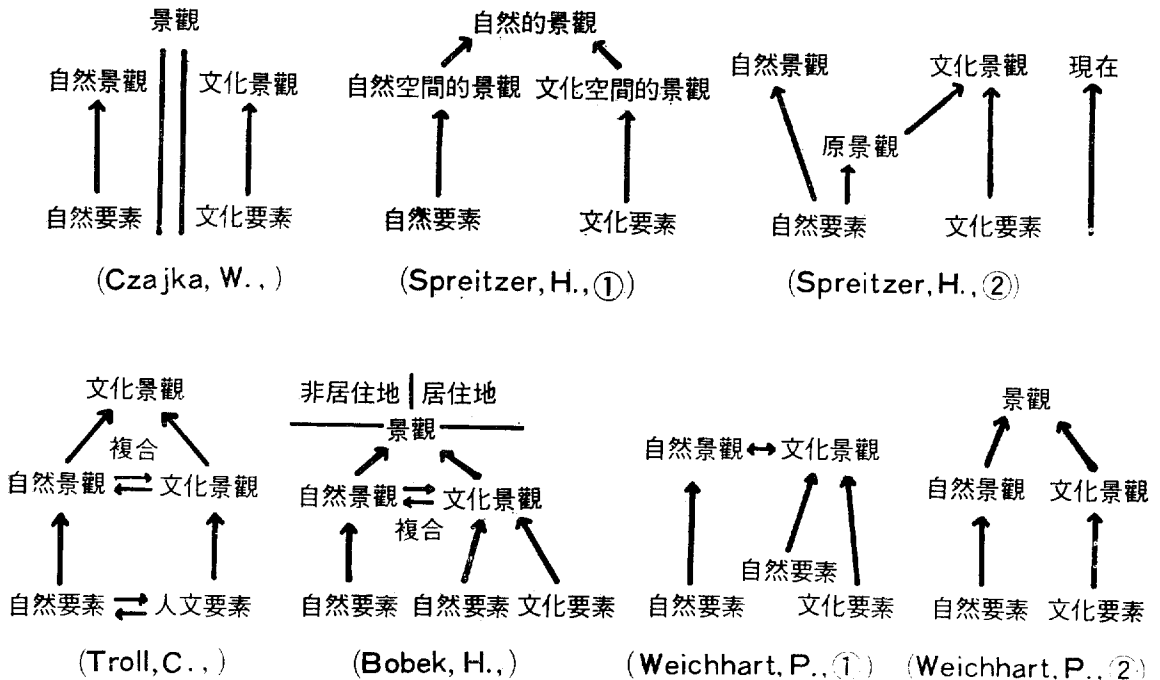


그림 1. 景觀의 構成

37) Troll, C., 1950, "Die geographische Landschaft und ihre Forschung," *Studium generale*, 3, pp.164~174.
 Hard, G., 1970, 전계서 22), pp.190~213.
 38) Bobek, H., 1957., 전계서 19) p.129.
 39) Weichhart, P., 1975, 전계서 7) p.34.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1940年代末까지는 景觀을 構體的인 實在로 보자는 傾向이 強했으나 1950年代 이후에는 景觀을 形而上學的인 對象으로 보자는 傾向이 뚜렷해 진 것은 틀림없다.⁴⁰⁾ 이는 景觀의 基本概念에 對한 構體的인 定義가 어려우므로 形而上學的인 概念으로 돌려 實質的인 問題를 해결하는 데에는 보다 實用的인 概念으로 代替하는 意圖도 많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된다.⁴¹⁾

景觀에 代替할 수 있는 概念으로 最近 프랑스와 美國 등지에서는 地域概念에 對해서 많이 論議하고 있다. 發表된 論文들을 分析하여 보면 景觀에서와 비슷하게 地域을 構體的인 實在로 보자는 主張과 認識의 抽象的인 對象으로 보자는 主張으로 大別할 수 있다. 그러나 景觀에서와 마찬가지로 確固한 概念定義는 너무나 많은 理論들이 發表되어 있어 대단히 어렵다.

最近의 地域概念에 對한 研究傾向은 Beaujeu-garnier가 體系的으로 研究하였는데⁴²⁾ 결국 그는 지금까지의 研究成果를 總決算하면서 地域에 對한 概念規定은 아무리 하여도 내리기 어려우므로 더 이상 계속 하는 것은 無意味하며 新地理學의 運動에 발맞추어 地域의 概念을 바꾸던지 아니면 地域概念의 代替概念으로 system 概念을 받아들일 것인지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특히 1960年代 中半以後부터 프랑스에서 이러한 傾向은 急히 強해지고 있기 때문에 傳統的인

Vidal de la Blache의 地域概念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⁴³⁾ 따라서 地域概念을 景觀概念과 代替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

景觀概念과 地域概念에 代替할 수 있는 概念으로 現在 가장 빈번히 論議되고 있는 것은 system 概念이다.⁴⁴⁾

그러나 system 概念의 特性 등은 이미 方法論 關係의 諸論文이나 單行本에서 자세히 論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省略하기로 한다.⁴⁵⁾

結論的으로 景觀을 system으로 생각하고 system 理論으로 景觀現象을 分析해 나아가는 地理學의 새로운 方法論을 擇하여야 急進的으로 發達하는 現代에 適應하는 地理學의 發展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4) 地理學에 있어서 生態概念

生態學의 概念이 E. Haeckel에 依해서 生物學에 導入되고⁴⁶⁾ H.H. Barrows에 依해 地理學에 導入된 以後⁴⁷⁾ 生態學의 概念은 地理學에 점차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1940年代까지는 이 概念은 아직 地理學의 一般的인 概念으로 생각되지는 아니 하였다. 왜냐 하면 그 때까지에는 地理學이 複合的인 因子의 相互關係를 研究하는 生態學의 方法論을 받아들여 應用할 수 있는 能力이 없었고 이러한 方法에 依한 研究에 基礎

40) 이미 앞에서 言及한 論文以外에 다음과 같은 論文들이 있음.

Schmitthener, H., 1951 전게서 14) p.127.

Száva-Kováts, E., 1960, "Das Problem des geographischen Landschaftsbegriffes," *Geog. Helv.*, 15, p.47.

Hard, G., 1970., "Was ist eine Landschaft?" Etymologie als Denkform in der geographischen Literatur,"

D.Bartels 편 *Sozial und Wirtschaftsgeographie*, 1970, Köln, Berlin, pp.76~78.

41) Schmithüsen, J., 1963, "Der wissenschaftliche Landschaftsbegriff," *Mitt. Florist. soziol. Arbeitsgemeinschaft.*, NF10, p.13.

42) Beaujeu-garnier, J., 1976, 전게서 3) pp.79~88.

43) Claval, P., 1975,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in France," *Progress in Geography*, v.7, pp.253~292.

Beaujeu-garnier, J., 1974, 전게서 28).

44) Hard, G., 1970, 전게서 22) pp.223~225.

Bobek, H., 1970, "Bemerkungen zur Frage eines neuen Standorts der Geographie," *Geog. Rundsch.*, 22, pp.440~441.

Bobek, H., 1972, "Die Entwicklung der Geographie-Kontinuität oder Umbruch?," *Mitt. Öst. Geog. Gesel.*, 114, p.11.

Neef, E., 1970, "Zu einigen Fragen der vergleichenden Landschaftsökologie," *Geog. Zeit.*, p.163.

Weichhart, P., 1975, 전게서 7) p.44.

45) 우리 나라에서 system 概念에 對해서 쓴 論文은 金仁, 1978, 現代地理學의 思考와 研究方向, 地理學論叢, 5, pp.4~14. 이 있음.

46) Haeckel, E., 1866, *Generelle Morphologie der Organismen*, Bd.2, Berlin, p.286.

47) Barrows, H. H., 1923, "Geography as human ecology," *Ann. Ass. Am. Geog.*, 13, p.13, 그는 地理學에 導入된 生態學을 human ecology 라 불렀다.

가 되는 data가 充分하지 못했으며, 그 당시 패배하였던 環境決定論的 思考에 逆行하였고 그 당시의 生態學의 概念만으로는 人間的 機能의 包含된 地理學의 特性을 說明하는데 充分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傳統의인 生態學에서는 生物體와 環境과의 關係에 따라 生態學을 Autökologie, Demökologie, Synökologie로 나누는데⁴⁸⁾이 모두에서 人間을 포함한 모든 生物體의 機能을 同一한 次元에서 보고 있는 點이 人間과 環境과의 關係를 研究하는 地理學에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問題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人間の 精神次元을 고려한 生態學을 地理學에서는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human ecology 혹은 Ökologie der Menschen의 새 概念이 創出되었다. 生態學의 Demökologie와 Synökologie에서는 Umwelt 뿐만 아니라 Mitwelt도 對象으로 하므로 自然環境要素 相互間的 關係도 研究하게 되어 수많은 變數와 그 複雜한 關係를 理解하여야 하므로 1950年代 以後 開發된 여러 가지 새로운 統計處理 手段을 効果적으로 使用하게 되었다.

生物界와 環境(Umwelt, Mitwelt)은 서로 하나

의 開放(open) system을 形成하고 物質과 에너지 뿐만 아니라 生物界에 人間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情報까지도 交換하게 되었다.⁴⁹⁾

그러나 地理學을 生態學과 同一한 學問으로 볼 수 없는 것은 當然하다. 왜냐 하면 生態學에서는 生物의 主體가 人間이 아닌 生物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地理學에서는 生態學의 方法論을 導入할 수 있는 것이지 生態學이 바로 地理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生態學과 地理學의 中間에 位置하면서 두 學問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uman ecology라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地理學의 生態學의 方法論에서는 特히 極端의인 決定論的 思考를 배제하고 生理的이고 機能의인 面을 많이 強調하므로 1950年代 以後의 新地理學에도 받아들여졌던 것이다.⁵¹⁾

C, Troll, 등이 主張하였던 景觀生態學(Landschaftsökologie(Geoökologie)⁵²⁾도 Haeckel의 一元論的인 生態學의 概念을 地理學에 導入한 것인데 그는 最初에는 너무나 自然의인 要素를 強調하였기 때문에 決定論的 思考에 立脚한 景觀生態學이라는 批判을 받았지만 그 以後 그의 說은 점

48) Schweddtbeger, F., 1963, "Ökologie der Tiere," Bd.1; Autökologie, Die Beziehungen Zwischen Tier und Umwelt, Hamburg, Berlin, p.14.

49) Weichhart, P., 1975, 전계서 7), p.75.

Nestmann, L., 1968, "Die Humanökologie- Begriff, Inhalt und Stellung im System der Wissenschaften," Deutsche Universitätszeitung, H. 5, pp.24~29.

Nestmann, L., 1969, "Der Mensch in seiner Umwelt, Versuch einer humanökologischen Interpretation der Entwicklungsdynamik," Deutsche Universitätszeitung, H. 19, pp.7~11.

Nestmann, L., 1971, "Human ecology.—A tentative system of geosciences centered on man," Geoforum, 5, pp.75~78.

50) Jusatz, H.E., 1944, "Ökologie des Menschen als Forschungsaufgabe," Pet. Mitt., 90, pp.200~202.

Hellpach, W., 1965, Geopsyche, Die Menschenseele unter dem Einfluß von Wetter und Klima, Ecden und Landschaft, Stuttgart, 7, Aufl.

51) Eyre, S.R., and G.R. Jones, 1966, Geography as Human Ecology, London, pp.1~29.

White, C.L., G.T. Renner and H.J. Warman, 1968, Geography: Factors and Concepts, New York., Sprout, H. and M. Sprout, 1965, The Ecological Perspective on Human affairs, Princeton., Socara, V.B., 1972, Geographie und Ökologie, p.95.

東歐圈에서도 最近 이러한 傾向은 뚜렷해 지고 있음.

52) Troll, C., 1939, "Luftbildplan und ökologische Bodenforschung, Zeitschr. d. Ges. f. Erdkunde z. Berlin, pp.241~298.

Troll, C., 1950, 전계서 37), p.166.

Troll, C., 1966, "Landschaftsökologie als geographisch-synoptische Naturbetrachtung," Tagungsber. d. Intern. Symposion über Pflanzensoziologie und Landschaftsökologie, Stolzenau/Weser, pp.11~12.

Neef, E., 1970, "Zu einigen Begriffen der Ökologie," Archiv für Naturschutz und Landschaftsforschung, 10, pp.238~239.

53) Klink, H.J., 1972, "Geoökologie und natürräumliche Gliederung-Grundlagen der Umweltforschung," Geog. Rundz., 24, p.7.

차 變化되어 現在에는 human ecology와 거의 비슷한 概念으로 變質되었다고 생각된다.

景觀生態學에서는 定性的인 方法보다는 定量的 計量的 方法이 보다 問題解決에 有利하며 따라서 理論定立이나 法則追求가 可能하다.

그러나 傳統的인 景觀生態學의 方法論의 큰 短點은 砂漠이나 周水河내지 水河現象이 강한 地域에서는 生物體의 역할을 거의 認定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는 適用할 수 없다는 點이다. 따라서 景觀生態學에서는 自然景觀要素 相互間的 關係에 대한 一般研究도 똑같은 重點을 가지고 行하여져야 한다.⁵⁴⁾

D.R. Stoddart⁵⁵⁾ 등은 生態學의 概念을 그대로 地理學에 받아들여려고 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問題가 生起되므로 生態學의 概念을 그대로 全部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機能과 生理의 側面만 地理學의 方法論으로 擇하자고 主張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Barrows에 의해 生態學 概念이 地理學에 導入된 이후 서서히 그 概念이 變質되어와 現在에는 地理學의 生態概念은 다만 人間集團과 環境과의 關係에 對한 概念으로 適用 範圍가 축소되었음은 틀림없다.⁵⁶⁾ 따라서 現在에는 ecosystem의 概念도 地理學의 ecosystem과 生物學의 ecosystem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地理學의 ecosystem에서는 人間이 主役割을 하기 때문이다.⁵⁷⁾

이러한 地理的 ecosystem은 다른 隣接科學의 研究對象은 될 수 없고 地理學의 獨者的인 分野가 될 수 있다.⁵⁸⁾

地理的 ecosystem을 地理學의 가장 重要한 研究對象으로 삼게 되면 흔히 論議되는 地理學의 全體性問題나 一體性問題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⁵⁹⁾

그러나 最近에는 生物學에서도 生態學에 人文 要素를 包含시키자는 主張이 일기 始作하여 生物學의 ecosystem과 地理學의 ecosystem의 區分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다.⁶⁰⁾

現在에는 生物學의 ecosystem에서는 人間의 役割을 重視하자는 主張이 別로 널리 받아들여 지지는 않지만 만약 이러한 主張이 널리 받아들 이면 地理學은 또다시 方法論上의 시련을 겪을지도 모른다.

한편, J. Beaujeu-garnier는 地理學의 ecosystem에서 특히 過去의 歷史의 發達過程을 重視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이 ecosystem은 根本的으로 空間의이고 機能的 單位라고 보았다. 또 이 ecosystem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model 定立을 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하여서 現代의 system 理論의 導入을 主張하였다.⁶¹⁾

地理學의 ecosystem은 存在論的으로 中性的의 本質을 가지므로 system 概念과 同一하기 때문에 地理學의 ecosystem을 現代의 system 理論으로 理解하여도 전혀 無理는 없을 것이다.

54) Hofmann, M., 1970, "Ökologische und synergetische Landschaftsforschung, Ein Beitrag zur Begriffskläru ng," *Geog. Zeits.* 58, pp. 5, 6.

55) Stoddart, D.R., 1967, *Organism and Ecosystem as Geographical Models*, R.J. Chorley and P.Haggett, *Models in Geography*, London p. 537. Weichhart, p. 1975. 전계서 p. 81).

56) Ackermann, E.A., 1963, "Where is a research frontier?" *Ann. Ass. Am. Geog.*, 53, p. 440.

Uhlig, H., 1970, "Organisationsplan und System der geographie," *Geoforum*, 1, p. 46.

Leszczycski, B.S., 1972, "Perspective on development of geographical sciences," Presidential address, XXII. IGC., Montreal, *IGU Bull.* 23, No.2, pp. 4~5.

57) Berry, B.J.L., 1964, "Approches to regional analysis.: a synthesis," *Ann. Ass. Am. Geog.*, 54, p. 3.

58) Neef, E., 1972, "Geographie und Umweltwissenschaft," *Pet. Mitt.*, 116, p. 85.

59) Stoddart, D.R., 1967, 전계서 53) pp. 530~537.

Isard, W., K.Bassett, et. al., 1958, "On the linkage of socio-economic and ecologic systems,"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Papers*, 21, pp. 79~99.

그러나 Bartels, D., 1968, 전계서 8)은 여기에서도 自然科學의 要素와 社會科學의 要素는 合하여 질 수 없다고 하여서 地理的 生態界의 一體性과 全體性을 否認하였다.

60) Thienemann, A.F., 1956, *Leben und Umwelt, Vom Gesamthaushalt der Natur*, Hamburg, Dahmen, F.W., und W. Heiss, 1972, "Umwelt- Schlagwort oder rettende Einsicht?" *Albert Skizzen, Sonderausgabe* 9.

61) Beaujeu-garnier, J., 1976, 전계서 3) p. 33.

Harvey, D., 1971, 전계서 3).

結論的으로 生態學的 理論을 部分的으로 혹은 全部 그대로 地理學에 導入하자는 것은 地理學을 傳統的인 個性記述의 地誌(Länderkunder)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選別된 情報만 받아들여 도록 하며 百科辭典式的 綜合性을 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構體的 問題設定을 可能하게 하며 現實과 現代科學의 理論에 맞기 때문에 많은 地理學者들 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⁶²⁾

地理的 ecosystem 안에서 自然環境의인 要素와 人間集團의 要素(文化要素)를 하나의 場으로 集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價値評價에 依해서 그 必要性을 느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場으로 集合하는 過程을 變形(Transformation)이라고 칭하는데, 이 變形의 가장 重要한 鍵인력은 最適利益(Optimalen Profit)이라고 하여 計量的 方式으로 調査할 수 있다고 主張한 경우도 있고⁶³⁾ 이러한 最適利益追求는 단지 人間行態 중 하나에 불과할뿐 全部가 아니며 보다 重要한 要因은 人間

集團의 歷史性, 規範, 혹은 社會的 威信 등등 大量的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고 主張한 경우도 있다.⁶⁴⁾

이상의 主張을 종합하여 보면 地理學的 生態界의 要素 중에 어떤 要素들은 現在까지의 技術로서는 計量的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은 分明하다.

(5) 地理學的 部分性과 一體性

最近 科學의 發達과 더불어 점차 學問이 專門分野로 더욱 細分化됨에 따라 研究의 편의상 地理學을 各分野로 나누어 專門家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傾向이 나타났고 이와 더불어 地理學을 自然地理學과 人文地理學으로 完全히 區分하여야 한다던지 혹은 自然地理學은 必要없고 人文地理學만 있으면 된다는지 하는 등의 地理學的 一體性을 否認하는 學說들이 發表되어 學界의 關心을 모으고 있다.⁶⁵⁾

62) Spethmann, H., 1928, *Dynamische Länderkunde*, Breslau, p.19, p.48.

Schwind, M., 1952, "Die Umweltlehre J.v. Uexkülls in ihrer Bedeutung für die Kulturgeographie," *Verhandlungen d. Dt. Geographentages Frankfurt*, S. 294.

Kalesnik, S.V., 1955, "Some results of the new discussion about a "Unified" geography," *Sov. Geog.*, 6, 7, p.24.

Lehmann, E., 1966, "Bemerkungen zur regionalgeographischen Problematik," *Wiss. Veröf. Dt. Inst. f. Landeskunde*, NF 23124, pp.7~13.

Schmieder, O., 1966, "Die deutsche Geographie in der Welt von Heute," *Geog. Zeits.*, 54, p.207.

Schmieder, O., 1969, "Probleme der Länderkunde im Spiegel der Kritik," *Geog. Zeits.* 57, p.32.

Harvey, D., 1971, 전계서 3) p.35.

Mihailescu, V., and T. Moraviu, 1971, "Was ist Geographie?" *Geog. Helv.*, 26, p.18.

Neef, B.E., 1972, 전계서 58), p.86.

Bobek, H., 1972, 전계서 41), p.15.

Lehmann, E., 1973, "Zur theoretischen Grundlegung des Begriffes Region," *Geog. Ber.*, 66, 1, p.42.

Weichhart, P., 1975, 전계서 7), p.91.

63) Kraus, Th., 1950, "Wirtschaftsgeographie als Geographie und Wirtschaftswissenschaft, Th., Kraus, 편 *Individuelle Länderkunde und räumliche Ordnung*, Wiesbaden," *Erdkundliches Wissen* H.7, p.49.

64) Hartke, W., 1953, "Gedanken über die Bestimmung von Räumen gleichen Sozialgeographischen Verhaltens," *Erdkunde*, 13, p.426.

Otremba, E., 1961, "Die Flexibilität des Wirtschaftsraumes," *Erdkunde* 15, pp.46~47.

Lewthwaite, G.R., 1955, "Environmentalism and determinism; a search for clarification," *Ann. Ass. Am. Geog.*, 56, p.2.

Wirth, E., 1959, "Zim Problem einer allgemeinen Kulturgeographie, Raummodelle kulturgeographische Kräftelehre-raumrelevante Prozesse-Kategorien," *Erde*, 100, p.172.

König, R., 1959, "Sozialgruppen," *Geog. Runds.*, 21, p.2.

Haase, J. und G. Haase, 1971, "Die Mensch-Umwelt-Problematik, Gedanken zum Ausgangspunkt und zum Beitrag der geographischen Forschung," *Geog. Ber.*, 61, 4, p.247.

65) 朴東源, 1978, 전계서 1).

Bartels, D. 1968, 전계서 8) p.180.

Bartels, D. 1953, "Die Zukunft der Geographie als Problem ihrer Standortbestimmung," *Geog. Zeits.* 56, H. 2, pp.124~142.

Bartels, D., 1959, "Der Harmoniebegriff in der Geographie," *Erde*, 100, pp.125~137. Bartels, D., 1969, "Theoretische Geographie," *Geog. Zeits.*, 57, p.132~144.

現在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실제적으로 自然地理學科과 人文地理學科가 分離되어 運營되는 경우도 있고 獨逸에서는 自然地理學이나 人文地理學에 屬하는 系統科目이 獨立되어 獨立學科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실사 學科의 正式名稱은 地理學科이지만 커리큘럼內容에서 自然地理學系統의 科目이 거의 없던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서 地理學의 全體性과 一體性의 問題는 現實的인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學問에 있어서 一般的인 二元論的 思考의 始作은 R. Descartes 이나 아마 그 以前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地理學의 傳統的인 方法論이나 이미 앞에서 論한 現代의 景觀論, 地域論, 生態系概念 등을 고려할 때 自然地理學과 人文地理學의 完全分離 혹은 自然地理學이나 혹은 人文地理學의 無用論 등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⁶⁶⁾

한편, 最近까지도 地理學이 空間構造의 패라다임을 擇할 경우에는 人間活動의 패턴에 關心을 두기 때문에 自然環境要素에는 無關心하고 따라서 自然地理學은 地理學에서 附隨的인 位置로 轉落할 수밖에 없지만 生態系의 패라다임을 擇할 때는 地理學이 自然要素와 人文要素가 複合된 하나의 system을 研究의 對象으로 삼기 때문에 自然地理와 人文地理의 重要性은 同一한 次元에서 생각하게 되므로, 地理學者 各者가 그 適好에 依해서 方法論을 擇하라는 主張도 있지만⁶⁷⁾ 地理學의 ecosystem은 지금까지 論한 바와 같이 空間構造

의 패라다임과 根本的으로 差異가 나는 것이 아니라 兩者擇一의 問題는 아니다. 다만 空間構造의 패라다임을 主張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人間活動의 pattern을 決定하는 데 있어서의 自然環境要素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自然環境要素를 社會環境要素와 같은 次元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空間構造의 分析을 地理學의 主 패라다임으로 생각하는 소위 新地理學에서도 自然地理學과 人文地理學의 分離 등의 問題는 理論上으로 提起될 수 없다.

1960年代 以後 英國이나 美國에서 [計量革命과 더불어 新地理學의 運動이 強하게 일어날 때 싹트기 始作한 이러한 地理學의 基本概念에 맞지 않는 思考는 現在에는 [이미 論議의 對象도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도 論한 바와 같이 研究의 편의상 地理學을 細分하여 專門的으로 다루자는 主張에는 많은 사람들이 同調하고 있다.⁶⁸⁾

(6) 地理學의 新方法論에 依한 新體系

地理學의 새로운 體系를 새로운 方法論에 依하여 세우고자 하는 試圖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大部分 어떤 短點들이 나타나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예를 들면 Bobek와 Schmithüsen이 함께 發表하고 後에 Bobek가 다시 확인한 說⁶⁹⁾에서는 文化景觀의 範圍를 너무 넓게 잡아 全地理學의 對

Kazakova, 1966, "The Development of theory of geography and landscape science in East and West Germany," *Soviet geography*, 7, pp. 43~44. (主로 東歐圈의 主要論文들이 紹介되어 있음)

66) Bartels, D., 1968(A), 1968(B), 1969(A), 1969(B) 전체서 65). Gould, P., 1973, *The Open Geographic Curriculum*, R.J. Chorley 편, *Directions in Geography*, London, pp. 252~284. 등의 極端的인 思考는 一般的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67) Graves, N.J., 1977, *Geography in Education*, London, p. 40.

68) Schultze, J.H., 1957, 전체서 19) p. 198.

Topitsch, E., 1965, *Das Verhältnis zwischen Sozial-und Naturwissenschaften, Eine Methodisch-ideologiekritische Untersuchung*, E. Topitsch,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Köln, Berlin, p. 65.

Lefevre, M.A., 1965, Le concept de région géographique, *La Géographie*, 17, Stegmüller, W., 1966, 전체서 3) p. 657.

Moser, S., 1966, "Der gesetzessbegriff in den Wissenschaften," *Studium generale*, 19, p. 670.

Rochhausen, R., 편 1968, *Die Klassifikation der Wissenschaften als Philosophisches Problem*, Berlin, p. 13.

Markow, K.K., 1971, *Einführung in die Allgemeine Physische Geographie*, (소련語 번역) Gotha, Leipzig, p. 15.

Weigt, E., 1972, *Die Geographie*, Braunschweig, p. 129.

Bunge, 1973, *Ethics and Logic in Geography*, R.J. Chorley 편 *Directions in Geography*, London, pp. 317~331.

Anuchin, V.A., 1973, *Theoretical Problems of Geography*, (소련語 번역) pp. 46~63.

東歐圈에서의 地理學의 全體性과 一體性 主張은 多分히 이데오르기의인 理由가 더 많다고 생각됨.

Weichhart, P., 1975, 전체서 7) pp. 53~54. Beaujeu-garnier, J., 1976. 전체서 3) pp. 9~16.

69) Bobek, H., und Schmithüsen, J., 1949, "Die Landschaft im logischen System der Geographie," *Erdkunde*, 3, pp. 112~120. Bobek, H., 1957, 전체서 19) pp. 122~145.

象이 바로 文化景觀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든지 地理學에서 地誌의 位置가 애매한 短點이 있고, J. Schmithüsen과 E. Netzel 등이 主張하는 說⁷⁰⁾에서는 地誌는 반드시 個性記述의 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서 現代의 方法論의 立場에서 볼 때는 適當하지 않다.

筆者는 지금까지 論한 新地理學의 方法論에 立脚하여 다음과 같이 地理學을 區分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地理學의 經驗對象(眞對象, Erfahrungsobjekt, Realobjekt)인 地球圈을 構成하는 要素를 非生物的 要素, 生物的 要素, 人文要素로 나눈다.

非生物的 要素에는 岩石내지 地質의인 特性, 起伏, 地表의 形態, 氣候特性, 陸水土壤 등이 포함되며, 이를 對象으로 하는 分野는 自然地理學⁷¹⁾(假稱, Physiogeographie)이라 하고 生物的 要素에는 人間, 動物, 植物要素가 包含되고 生態地理學(假稱, Ökogeographie 혹은 Klink의 Geoökologie)⁷²⁾이라 하며 人文要素에는 人口, 聚落, 交通, 經濟, 政治力 社會集團 등이 包含되며 文化地理學이라 稱한다.

生態地理學에 包含된 人間要素는 人間의 生理的 要素를 意味하며 人文要素는 人間의 精神作用의 結果 生成된 要素를 意味한다.

以上에 區分한 自然地理學, 生態地理學, 文化地理學은 合하여 複合地理學(Komplexe Geographie)을 構成한다.

自然地理學, 生態地理學, 文化 地理學은 다시 各各 一般地理學(Generelle Geographie)과 特殊地理學(Spezielle Geographie, 地 혹은 域地理學)으로 區分된다(예를 들면, 一般自然地理學, 特殊自然地理學).

複合地理學에 對應하는 概念으로 普遍地理學(Allgemeine Geographie)⁷³⁾이 있다.

普遍地理學에서는 傳統의 地理學의 地誌와 비

슷한 立場을 갖지만 그 性格은 相異하다.

普通地理學에서는 自然地理學, 生態地理學, 文化地理學의 要素를 全部 包含하며 이러한 各 要素들이 이루는 空間特性의 變化와 그 法則性을 追求한다.

普通地理學은 다시 一般普通地理學(Generelle Allgemeine Geographie)과 特殊普通地理學(Spezielle Allgemeine Geographie)으로 區分한다.

普通地理學과 複合地理學을 合하여 하나의 完全한 地理學을 形成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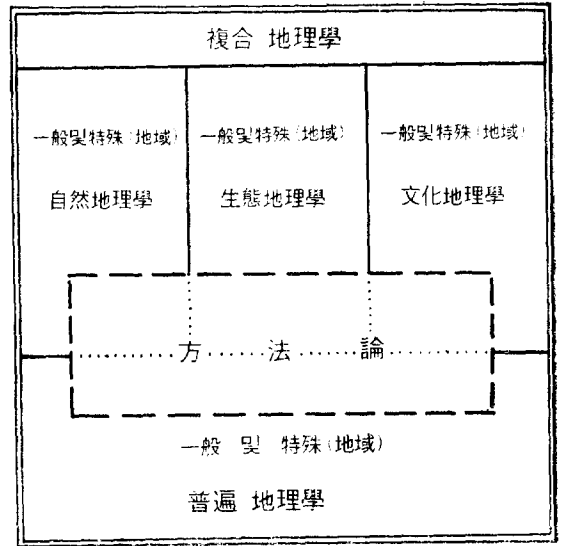


그림 2. 地理學의 새로운 組織

複合地理學은 傳統의 地理學에서 보던 系統地理學과 비슷하지만 複合地理學 안에 地域地理學의 性格이 들어 있어 그 本質이 전혀 다르다. 한편 普通地理學은 傳統의 地理學의 地誌와 비슷하지만 傳統의 地理學의 系統地理學 分野가 있으므로 또한 그 性格이 다르다.

新地理學의 方法論에서는 一般地理學과 特殊地理學은 相互 補完의이므로 兩者가 똑같이 存在해

70) Schmithüsen, J., 1970, 전계서 6), pp. 434~436.

Netzel, E., 1966, "System und Terminologie der Geographie," *Geog. Runds.*, p. 61.

71) Physiogeographie는 地貌地理學 혹은 物理地理學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筆者는 自然地理學으로 번역했음.

72) Klink, H.J., 1972, 전계서 53). p. 12.

73) 獨語의 generelle Geographie와 allgemeine Geographie를 韓國語로 번역하기는 힘들다. 필자는 generelle geographie는 一般地理學, allgemeine Geographie는 普通地理學으로 잠정적으로 번역하였다. 日本에서는 野間三郎이 "近代地理學의 潮流" 第6版, 1975, 大明堂 p. 207에서 "generell"를 "普通"(例 generelle Morphologie 普通形態學)이라 번역했으나 同一한 冊의 p. 211에서는 "一般"이라 번역하고 또 同一한 Page에서 "普通"이라 번역하고 있어 "generell"와 "allgemein"의 통일된 번역어가 없는 것 같다.

야 한다.⁷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對象으로 삼는 地球圈의 要素도 全要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重要的 意味를 가진 要素만 選別的으로 擇해서 地理學의 對象으로 삼는다. 따라서, 地球圈 全 要素에 對한 百科辭典式의 研究는 行하지 않는다.⁷⁵⁾

複合地理學과 普遍地理學은 모두 system 理論에 依해서 研究되며⁷⁶⁾ 個性記述의 方法은 研究의

初期段階에만 必要할뿐 研究의 最終目的은 理論의이고 法則追求의이다.⁷⁷⁾ 따라서 計量的인 方法이 重要的 技術로 使用된다. 現在 計量化에 對해서는 O.K.H. Spate가 말한 것처럼⁷⁸⁾ 이미 알려져 있는 事實을 複雜한 方法으로 確認해 보는데 不過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計量的인 方法은 地理學의 措寫方法을 좀 더 세련시키고 精華시키는데 不過하다는 批判을 받기도 한다.⁷⁹⁾

74) Spranger, E., 1949, *Der Bildungswert der Heimatkunde*, pp.7~8.

Lautensach, H., 1953, "Über die Begriffe Typus und Individuum in der geographischen Forschung," *Münchener Geographische Hefte*, 3.

Schmitthenner, H., 1954, "Zum Problem der allgemeinen Geographie und der Länderkunde," *Münchener Geographische Hefte*, 4.

Otremba, E., 1963, "Räumliche Ordnung und zeitliche Folge im industriell gestalteten Raum," *Geog. Zeits.* 51, p. 33.

Rochhausen, R., 1968, 前제서 67) p.102.

Schöller, P., 1970, "Gedanken zum Geographieunterricht der Schule aus der Sicht der Universität," *Geog. Rund.*, 22, p.362.

James, P.E., and C.F., Johnes, 1954,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 Syracuse Univ. Press p. 31.

Hartshorne, R., 1959,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eography*, Chicago, pp.108~145.

Tschierscke, H., 1961, 前제서 23), p.106.

Pokšiševskij, V.V., 1963, "Über den Charakter der Gesetzmäßigkeiten [der ökonomischen Geographie]," *Pet. Mitt.*, 107, p. 235.

Morgan, W.B., and R.P. Moss, 1965, "Geography and ecology, The concept of the community and its relationship to environment," *Ann. Ass. Am. Geog.*, 55, p.340.

Gellert, J.F., 1967, "Die gesellschaftliche Aufgabe der Geographie und das Wesen der geographischen Wissenschaften," *Geog. Berichte*, 43, 2, p.116.

75) Harvey, D., 1971, 前제서 3) p.452

James, P.E., 1972, *All Possible Worlds,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New York, pp.469~470.

Weichhart, P., 1975, 前제서 7) p.105.

百科辭典式이고 個性記述의인 學問은 科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76) system 理論을 地理學에 導入하자고 主張한 學者들은 다음과 같다.

Leopold, L.B., and W.B. Langbein., 1962, "The concept of entropy in landscape evolution," *USGS., Prof. Paper*, 500-A, pp.1~20.

Ackerman, 1963. 前제서 56), pp.429~440.

Berry, B.J.L., 1964, 前제서 51), pp.2~11.

Witt, W., 1967, "Ökonomische Raummodelle und geographische Methoden, Ernst Plewe zum 60. Geburtstag," *Geog. Zeits.*, 55, pp.91~109.

Chisholm, M. 1967, "General system theory and geography," *Trans. Inst. Brit. Geog.*, 42., pp.45~52.

Woldenberg, M.J., and B.J.L. Berry, 1967, "Rivers and central places; analogous systems?" *Jour. Reg. Science Ass.*, 7, pp.129~139.

Wilbanks, T.L., and R. Symanski, 1968, "What is systems analysis?," *Prof. Geog.*, 20, pp.81~85.

Borchert, J.R., 1968, *Geography and Systems Theory*, S.B. Cohen 편 *Geography and the American Environment*, Washington, D.C., pp.285~293.

Footte, C.D., and B. Greer-Wootten, 1968, "An approach to system analysis in cultural geography," *Prof. Geog.* 20, 2, pp.86~91.

Moewes, W., 1971, "Integrierende geographische Betrachtungsweise und angewandte Geographie," *Geoforum*, 7, pp.55~68.

Harvey, D., 1971, 前제서 3), pp.447~480.

Chorley, R.J., and B.A. Kennedy, 1971, *Physical Geography; A System Approach*, London.

77) 傳統地理學에서도 現代의 system 概念과 비슷한 概念들은 發見된다. 예를들면 climax. succession. harmony 등 Bartels, D., 1969, 前제서 65), 와 Bobek, H., 1970. 前제서 41), p.440 참조.

78) Spate, O.K.H., 1960, "Quality and quantity in geography," *Ann. Ass. Am. Geog.*, 50, p.388.

79) Brookfield, H.C., 1964, "Questions on the human frontiers of geography," *Econ. Geog.*, 40.

특히 現在의 技術水準으로는 計量化하기 어려운 여러 部門에서는 計量化가 전혀 意味가 없으므로 計量化는 必要없는 方法이라고 주장하는 說도 있다.

그러나 장차 計量化의 技術도 向上될 것이므로 現在 計量化하기 어렵다 해서 일찍부터 포기할 必要는 없다. 특히 地理學의 應用側面을 생각하여 본다면 地理學이 空間의 構體的 特性을 研究해야 되고 空間의 變化를 豫測할 수 있어야 되므로 計量化 理論定立 法則追求 등은 絶對 必要하다. 이 問題는 地理學을 科學으로 보느냐 혹은 안 보느냐 보다는 훨씬 次元이 높은 地理學의 生死에 關係되는 問題이다.

새로운 方法論을 가진 新地理學은 積極的으로 現實的 問題의 解決에 參與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는 길이 바로 地理學을 보다 發展시키는 길이다.⁸⁰⁾

3. 結 論

1950年代 이후 Schaefer 등에 依해서 始作된 新地理學運動은 傳統的인 地理學의 方法論에 큰 打擊을 加한 地理學의 革命이었다. 이 革命의 물결은 곳곳에 方法論에 關한 論爭을 불러일으켜 可히 方法論에 있어서 群雄割據의 時代를 到來케 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특히 西部 유럽(스웨덴포함)에서는 오랜 地理學의 傳統을 가지고 있고 終來의 傳統的인 地理學 方法論에 있어서도 學派別내지 地域別로 큰 差異가 있었던 만큼 新地理學의 物결에 適應하는 態度도 극히 多種多樣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 西部 유럽의 新地理學方法論을 研究하여 보는 것은 價値가 있는 일이며 나아가서 그 研究結果는 우리 나라의 地理學方法論의 定立에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本論文에서는 地理學의 骨格이 될 수 있는 地

理學研究의 方法과 關聯된 個性記述의 혹은 法則定立의 方法에 對한 理論의 背景, 地理學의 對象과 그 範圍, 景觀概念, 生態概念, 地理學의 部分性和一體性問題 등에 對해서 우선 傳統地理學의 方法論의 立場에서 考察하고 그 問題點을 論하였으며 나아가서 이러한 問題點들이 新地理學에서 어떻게 濾過되고 處理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다 理想的인 地理學의 方法論을 提示하였다.

地理學 研究方法에서 個性記述의이나 法則定立의이나 하는 問題에서는 地理學의 研究方法은 個性記述의이어야만 한다는 說과 地誌에는 個性記述의이지만 系統地理學에서는 法則定立의이어야 한다는 說, 研究의 初期段階에는 個性記述의일 수 있지만 最終的으로는 法則定立의이어야 한다는 說, 혹은 地理學은 無條件 法則定立의이어야 한다는 說 등이 發表되고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 批判的으로 分析하고 筆者는 地理學이 科學이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法則定立의이고 理論追求의이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地理學의 獨者的인 對象과 그 範圍를 정하는 일은 傳統的인 科學哲學의 方法으로는 不可能하다. 왜냐 하면 地理學은 그 領域이나 方法論 혹은 發達의 歷史 등 傳統的인 指標를 使用해서는 獨立된 學問으로 規定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地理學의 獨立性을 立證하기 爲해서는 次元이 다른 두 개의 對象, 即 一次的 對象(上位概念)과 二次的 對象(下位概念)을 設定해야 한다.

一次的 對象은 眞對象내지 經驗對象으로서 바로 地球圈을 意味하고 絶對 不變이며 二次的 對象은 形式對象내지 認識對象으로서 이 對象은 時期와 場所에 따라 變한다. 다시 말하면 必要時에 關係있는 學者들의 合意(consensus)에 依해서 그 對象과 範圍가 決定되는 것이다.

景觀概念을 規定한 學說들을 分析考察하여 우선 景觀을 하나의 個別的 地表空間으로 보았을 경우와 景觀을 하나의 空間型으로 보았을 경우로

80) Bartels, D., 1968, 集계서 8) p. 46.

Winkler, E., 1970, "Über die natürliche Ordnung der Erdwissenschaften, Beitrag zur Systemlehre der Geographie," *Geog. Helv.*, 25, p. 5.

Leser, H., 1973, "Zum Konzept einer Angewandten Physischen Geographie," *Geog. Zeits.*, 61, 1, p. 43.

Beaujeu-garnier, J., 1976, 集계서 3) pp. 11~22. 등등은 地理學의 應用性을 특히 強調하고 있음. 특히

Winkler, E., 1966, "Zur Frage der Spezialisierung der Geographie," *Geog. Helv.* p. 82., Bartels, D., 1969, 集계서 65), *Geog. Zeits.*, p. 133. 등은 地理學의 寄與範圍를 넓히는 길만이 地理學의 固有範圍를 지키는 길이라 主張하고 있다.

크게 나누어 整理하였다. 前者는 다시 景觀을 다만 하나의 Land로 보았을 경우와 外樣으로 評價되는 하나의 地表空間으로 보았을 경우로 區分하였고 後者는 空間型이 하나의 主要한 個別的 現象에 依해서 主導되는 경우와 많은 個別的 現象의 綜合으로 主導되는 경우로 다시 細分하였다.

以上과 같이 景觀概念 規定에 關한 여러 學說들을 그 特徵에 따라 區分하여 보았는데 各各長點과 短點이 있어서 優劣을 評하기는 事實上 不可能하다. 그러나 特히 景觀을 外樣으로 評價되는 하나의 地表空間으로 보자는 說에 對해서는 批判이 많은데 그 理由는 內部要素의 狀態와 相互關係가 반드시 그대로 外部로 정확히 나타날 수 없다는 事實에 있다.

한편, 景觀概念에 對한 여러 가지 學說는 또한 많은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即 景觀은 많은 構成要素(自然的 要素, 人文的 要素)로 構成되어 있고 이러한 要素들은 相互間 密接히 關聯되어 있다는 것. 1940年代부터는 景觀概念에 生態系의 概念이 導入되면서 점차 景觀構成要素 相互間의 垂平的, 垂直的인 動的平衡關係가 強調되었다는點, 그러나 景觀構成要素의 機能에 對해서는 比較的 無關心하여서 現在 景觀論의 批判者들로부터 景觀論은 非科學的이라는 批判을 받게 되었다는點 등이다.

傳統的인 景觀論의 가장 큰 問題點은 景觀構造에 對한 極히 相異한 意見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W. Czajka, H. Spreitzer, C. Troll, H. Bobek, P. Weichhart 등의 景觀構造論을 擇하여 分析하여 보았으나 어떤 共通點을 發見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 學者들이 使用하는 景觀, 自然景觀, 人文景觀 등의 概念이 相異하게 定義되어 있으므로 더욱 混亂을 加重시키고 있다.

景觀을 地理學에서 傳統的으로 가장 重要한 基礎概念으로 받아들여 왔는데도 不拘하고 이와 같이 概念規定이 어려운 것은 地理學의 方法論 設定에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最近에는 代替概念으로 "geomor"가 紹介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地域概念을 景觀의 代替概念으로 받아들여자는 主張도 상당히 強力하지만 地域概念 또한 景觀概念과 비슷한 問題點을 가지

고 있다 하여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景觀概念이 生態系의 概念을 받아들인다면 景觀은 存在論的으로 中性이 되고 system 概念과 差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졌으므로, 景觀概念과 代替概念으로 system 概念을 導入하면 地理學에 있어서 오래 동안 論議되어 온 景觀概念의 規定과 關連된 混亂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思料된다.

그러나 이러한 system 概念은 空間構造論의 思考에 基礎를 둔 것은 아니고 歷史性을 強調한 生態學의 概念임을 分明히 해 두고자 한다.

地理學에 Barrows 등에 依해서 生態學의 概念이 導入된 以後 C. Troll 等に 依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人間을 主體로 다루는 地理學에서는 人間을 其他 生物과 同一한 次元에서 다루는 生物學의 生態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生物學의 生態學은 地理學에 導入되면서 變質되어 소위 地理學의 生態學 내지는 human ecology 혹은 Ökologie der Menschen으로 되었다.

地理學의 生態學의 對象은 地理學의 ecosystem이며 여기에서는 人間이 生物一般과는 다른 次元에서 다루어지고 人間이 主導的 役割을 한다. 이 地理學의 ecosystem은 根本的으로 空間的이고 機能의이며 歷史的인 發達過程도 重要視한다. 그리고 system의 一種으로서 system 理論으로 理解할 수 있다.

地理學의 ecosystem 안에서 自然環境의 要素와 人間集團의 要素(文化要素)는 變形(Transformation)에 依해서 하나의 場으로 集合되므로 地理學은 一元論的 構造를 갖는다.

따라서, 地理學의 全體性과 一體성은 自明하며 自然地理學과 人文地理學의 完全分離라든지 地理學內에서의 自然地理學과 人文地理學의 重要性의 差異 등등에 對해서는 論할 價値도 없다.

마지막으로 新地理學의 方法論에 依한 新地理學의 體系를 提示하였다.

우선 地理學의 一次的 對象은 地球圈으로 하고 二次的 對象은 非生物的 要素, 生物的 要素, 文化要素로 三大分하고 이를 취급하는 地理學의 分野를 各各 自然地理學, 生態地理學, 人文地理學이라 칭하였다. 이상의 三分野는 合하여 複合地理學을

構成한다. 또 三分野는 各各 一般地理學과 特殊地理學(地域地理學)으로 二分된다.

한편, 傳統地理學의 地誌의 位置에 있는 것이 普遍地理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다시 一般地理學과 特殊地理學으로 二大分된다. 뿐만 아니라 傳統地誌의 特性인 個性記述의 方法은 原則的으

로 排除되며 一般地理學과 特殊地理學은 서로 補完的인 關係를 가진다.

地理學의 方法論學은 複合地理學과 普遍地理學 사이에 位置하면서 上記 兩地理學을 連關시키는 役割을 한다(그림 2 參照).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助教授)

A Study on the New Methodology of Geography developed since 1950 in the Western Europe

Dong Won Park*

Summary

The New Geography Movement has caused us to reflect on basic methodological problems of geography and to intensify the discussions about the basic concepts of geography. This movement has affected especially geography in Western Europe, including Sweden to greater extent than the other areas because this area has an extremely different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geography since the beginning of modern geography.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critically the traditional basic theories of geography and some methodological problems of the New Geography, and to present a reasonable methodology of geography which is suitable to serve as a theoretical basis of geography, especially for the sake of the geography of Korea.

The writer conducted an intensive analysis of all the materials on the methodology of geography published in Western Europe, including Sweden since 1950, and other important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 order to avoid one sided orientation on certain particular schools of geography.

Most of the critical discussions on the methodology of the traditional geography are focused on the following concepts, that is, the way of research (ideographic or nomothetic), Landschaft concept, ecology concept, unity of geography and a new organization of geography based on new methodology. With changes in view, the writer has dealt chiefly with these concepts and problems.

On ideographic and nomothetic methodology:

Geography has been an ideographic discipline since Varenus, but as far as geography remains ideographic, geography might not be thought scientific, according to the modern philosophy of science, because it fails to deduce any laws and find general applicability. The enormous amount of geographical information produced these days and the developed techniques of analysis is bringing change from the traditional ideographic methodology toward the nomothetic concept, even in regional geography. It is now insisted that the ideographic methodology should be rejected completely in geography.

On the object of geography:

The traditional methodology of geography has overlooked or neglected the differentiation of real object and formal object demanded by

the philosophy of science, and has used a merely subject-derived concept, which inevitably caused a great confusion in defining the object of geography. The real object of geography is the study of the geosphere, which is absolutely unchangeable and does not enable the deduction of any organizational concept from this object. The formal object is a specific way of investigating the geosphere, and its detailed contents are subject to consensus of those concerned. This nature of the formal object indicates that the formal object could vary any time. By defining two different dimensional objects for geograsphy the vagueness of the purpose of geography can be eliminated.

On the Landschaft and ecology concept:

The concept of the Landschaft in traditional geography was critically reviewed and it is realized that the object and structure of Landschaft are so differently defined among geographers that it is at present difficult to recommend this concept as a basic concept of geography. In addition to this, the claim of this concept on universality and its lack of ontological neutrality have to be critized. However, if the concept of ecology is introduced to the traditional Landschaft concept, the nature of the Landschaft concept will change to an ecological Landschaft,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concept of geographical ecosystem.

On the unity of geography:

Taking the new concept of ecological Landschaft and the geographical ecosystem into consideration, the writer insists that there should not be any fundamental conflict or an indissoluble dichotomy between physical geography and human geography. The division of systematic geography into physical aspects

and human aspects should be nothing but a mean for the benefit of more effective geographical researches. Accordingly, the writer does not accept any one of the fundamental demands of modern methodological criticism, most distinctly articulated by D. Bartels.

On new organization of geography: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new concepts of geography the writer draws a tentative organization plan for a new geography which consists of general, regional systematic geography, and complex geography as the main divisions within the discipline. Systematic geography is split into its traditional subdisciplines, which have the task of investigation of the laws and invariances causing and directing the chorological variations of the geofactors.

Complex geography includes three subdisciplines, that is, general and regional physical geography, general and regional human geography, and general and regional ecogeography. The general and regional physical geography studies the complex relationships and system interactions between the physical geofactors. It is assigned to discover the laws and general system interactions involved as well as to demonstrate their regional validity. The general and regional human geography deals with the complex relationships and system interactions between the anthropogenetic geofactors. The general and regional ecogeography, which is a new introduction to the complex geography, is concerned with those special aspects of the geofactors which are important for the system interactions between human society and its physical environment. Ecogeography, too, has the task of studing the laws and general system interactions as well as the regional systems of

specific man-environment relationships.

In this modified organizational plan the Landschaft concept of traditional geography is substituted by the ontologically neutral system concept granting the quantification of the hypothesis and emphasizing the historical aspects of geographical development as well. The dichotomies of traditional geography are of no importance to this newly

conceived organizational plan. -

This modified methodological system should not only help to overcome the scientific insufficiencies of the traditional basic concepts revealed by methodological criticism but also increase the possibility for geograph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pplied geographical researches.